

Katherine Anne Porter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심리*

- "Maria Concepcion"(1922)과
"The Cracked Looking-Glass"(1932)를 중심으로 -

심 방 자**

목 차

- I. 서 론
- II. "Maria Concepcion"의 Maria Concepcion
- III. "The Cracked Looking-Glass"의 Rosaleen O' Toole
- IV. 결 론

I. 서론

미국문학은 19세기에 이어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상당한 발전을 거듭하였는데, 그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점하고 있는 남부문학에서는 특히 Katherine Anne Porter, Flannery O' Conner, Eudora Welty, Joyce Carol Oates 등 탁월한 여류작가들이 대거 등장하는 특징을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본 논문에서 다루게 될 Katherine Anne Porter(1890-1980)는, 작품 주제의 심각성의 면에 있어서는 Hawthorne과 Melville 이래의 미국소설의 맥을 잇는 작품을 쓴 인물이라 할 수 있으며, 작법상의 기교가 뛰어나고 또 이를 위해 의식적으로도 부단한 노력¹⁾을 경주한 면에서는 Henry James의 전통을 잇는 작가로도 평가받고 있다. 또한 여

* 본 논문은 94년도 숭실대 교내 연구비의 지원에 의한 것임.

** 人文大 英語英文學科 教授

1) Porter는 Glenway Wescott에게 말한 "I Spent my life thinking about technique, method, style. The only time I do not think about them at all is when I am writing."에서 잘 나타난다.

러평론가²⁾들로부터 Porter는 그녀의 단편작품들에서 진지한 주제를 면밀한 구조와 자연스럽게 풍부한 내부묘사, 압축적이며 간결한 문체, 정확한 심리 묘사를 통해 다름으로써 확실히 높은 예술성을 지닌 작가라는 평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Porter의 작품에는 대체로 그녀 자신의 모습을 반영하는 여주인공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들은 Porter가 보는, 악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으며 전통적인 가치관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지표를 잃고 방황하는 '황무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Porter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도 인간은 의지와 용기로써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야 하며 인간다움 도덕심과 자존심을 잃지 말 것을 작중인물들을 통해 당부하고 있다. 즉 그녀의 여주인공들은 보다 섬세한 여성특유의 심리상태를 보이면서도 자기의 인생을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개척하고 살아나간다는 점에서는 "Hemingway hero"들과 공통되는 독립심과 용기를 보여준다.

이같은 독립심과 용기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엄청난 격차때문이기도 하며, 다시 이러한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인하여 경험하게 되는 환멸은 Porter문학의 중요한 주제가 된다. 즉 Porter의 여주인공들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인생의 새로운 국면에 돌입하거나 아니면 자기 실체의 본모습을 알지 못하고 거짓된 환상에 사로잡혀 평범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다가 어느날 사소한 일이 실마리가 되어 갑자기 현실의 실체를 깨닫게 되고 충격을 받게 되는데, Porter는 이러한 충격과 환멸을 다양한 모습으로 독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Porter가 이처럼 황망한 모습으로 사회를 그리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현실에 대한 체념 내지는 굴복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언급했듯이 작가는 그의 글을 통해서 인간다움과 독립심, 용기 등을 간직할 것을 암시하는 동시에, Porter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세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이런 이상적 세계의 모습은 안락하고 따뜻한 가정의 모습이다. 이러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은 작품속에서 일종의 "추구"라는 주제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녀의 작중 여주인공들은 그들의 추구 내지는 이상을 달성하지 못하고 또다시 고독하

(Louis Auchincloss, "Katherine Anne Porter" in *Pioneers & Caretakers: A Study of 9 American Women Novelists*(Univ.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1965), p. 136 참조).

2) Ray B. West, George Hendrick, Edmund Wilson 등

고 소외된 생활을 하게 된다. 이렇게 반복되는 좌절과 실망은 Porter의 여주인공들로 하여금, 독자적인 생활을 고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성과 깊은 사랑을 맺거나 결혼 생활로 정착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망설이게 한다거나 하는, 일종의 거부자세를 취하게 한다. 즉 그녀는 결혼 후 남편의 지배등에 의해 자신의 자아가 말살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거나 실제 자신의 자아를 포기하기 보다는 비록 외롭고 소외된 생활을 영위하겠지만 결혼이나 사랑을 포기하는 쪽을 택함으로써 오히려 독립된 자아의 확립을 위한 고귀하고 진지한 노력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비극적인 사건으로 가득한 세계를 묘사하였음에도 Porter의 문학이 궁극적으로는 긍정의 문학이라 평가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황량한 세계에서 좌절과 갈등으로 괴로워 하는 인물들을 동정적이고, 인간을 중시하고 포용하는 휴머니스트적인 태도로 대하는 Porter의 작품은, 가족애와 인간성등이 각박해져가는 현대사회에 대해서는 부담없는 도움의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여성의 의식과 역할이 더욱 중요한 오늘에 있어서는 그녀의 작품에 제시된 기혼여성들이 부딪히는 사회적 제약과 불평등의 문제를 통해서 불합리한 성의 문제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Porter의 작품이 미칠 잠재력의 폭과 깊이가 이 러함에도 불구하고, Porter의 작품은 국내에 그저 관심있는 소수에게만 소개된 상태에 불과하다. Porter에 대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대학의 정규교재로 그녀의 작품이 채택되어 널리 읽혀지고 있는 미국까지 보지 않더라도, Porter에 대한 합당한 연구와 관심은 미국문학사적으로 뿐만아니라 인간성 회복과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여성의 의식 내지 역할에 대해 작으나마 확실한 힘을 보탬 수 있을 것이다.

대강이나마 Porter에 대한 그리고 Porter의 작품에 대한 이상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본 논문에서는 기혼 여성의 심리가 특히 잘 표현되어졌다고 생각되는 두 작품 "Maria Concepcion"과 "The Cracked Looking-Glass"의 분석을 통하여 이 두작품의 여주인공 Maria Concepcion과 Rosaleen O' Toole의 심리를 살펴 보고자 한다.

II. “Maria Concepcion”(1922)의 Maria Concepcion

이 작품은 1922년 여름에 완성되어 그해 12월 *Century*지에 게재된 Porter의 첫 출간 작품이며 Porter가 한동안 살았던 Mexico에서의 경험에서 나온 작품들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Mexico는 Porter가 스스로 “이곳은 나에게 정든 고장이어서 나는 Mexico에 대하여 글을 쓴다.”라고 1923년 *Century*지에 보낸 편지 “Why I Write about Mexico”에서 밝히고 있다.³⁾ 이 편지에서 Porter는 “the passion for individual expression without hypocrisy, which is the true genius of the race.”라고 Mexican의 솔직한 자기표현을 높이 평가했다.⁴⁾ 이 말은 특히 이작품 속의 여주인공 Maria Concepcion의 행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사랑, 질투, 복수에 얽힌 삼각관계 속의 세 Mexican 인디안의 이야기의 여성을 그리고 있는 가장 완벽하고 주목할 만한 것의 하나라고 보겠다. 따라서 자연히 여기에서는 등장인물의 심리묘사도 뛰어나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Maria Concepcion이라는 이름은 “Mary of the Conception”으로 어머니를 나타내고 구원의 여성이며 생명의 영속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Maria Concepcion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야기의 처음에 등장하는, 임신한 그녀의 여유있고 당당한 걸음걸이에서는 우아함이 느껴졌고 그녀 자신도 아주 만족해 하고 있었다. 이렇듯 원래 그녀는 신앙심이 깊고 평판이 좋은 여인이었지만 남편 Juan Villegas와 어리고 아름다운 여인인 Maria Rosa와의 관계에는 너그러울 수 없었다. 남편과 Rosa가 함께 즐거워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그녀는 만족과 마음의 평화가 깨어진다. 그녀가 받은 큰 충격은 다음 표현 속에 잘 나타나 있다:

Maria Concepcion did not stir nor breathe for some seconds,
Her forehead was cold, and yet boiling water seemed to be
pouring slowly along her spine. An unaccountable pain was in

3) George Hendrick, *Katherine Anne Porter* (Boston: Twayne Publishers, 1965), p. 28.

4) Hendrick, p. 29.

her knees, as if they were broken. She was afraid Juan and Maria Rosa would feel her eyes fixed upon them and would find her there, unable to move, spying upon them.⁵⁾

또한 그곳에서 발길을 돌리는 그녀의 암울하고 착잡한 심리 상태는 다음의 표현속에서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Maria Concepcion came out of the heavy cloud which enwrapped her head and bound her throat, and found herself walking onward, keeping the road without knowing it, feeling her way delocately, her ears strumming as if all Maria Rosa's bees had hived in them. (6)

죽고싶은 그녀의 심정은 남편과 정부를 먼저 목잘라 버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된다. 닭을 잡는 그녀의 모습, 즉 “닭의 머리를 잡고 잘라 머리를 비트는”(5) 그녀의 행위는 흡사 남편과 정부를 죽이는 그녀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Rosa에 대해서는 “Yes, she is a whore! She has no right to live.”(6)라고 큰소리로 욕하고 있었다.

자신이 목격한 것을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남편에 대한 분을 가라앉히는 동안 Rosa에 대한 분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내가 Maria Rosa처럼 어린 소녀일때 만약 어떤 남자가 나를 그렇게 잡으면 내 항아리를 그놈 머리에 던져 깨 버렸을 꺼야”(8)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Juan이 처음 그녀를 잡았을 때 Rosa 만큼도 저항하지 않았던 것은 까맣게 잊고 Rosa를 비난한다. 이것은 질투심이 그녀의 판단을 이성적으로 하지 못할 정도임을 시사하고 있다.

Concepcion은 그녀가 교회에서 결혼했다는 것에 대하여 매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교회에서 결혼공고를 하는 것은 그 지역사회로의 진출을 뜻하는

5) Katherine Anne Porter, *The Collected Stories of Katherine Anne Porter* (New York: Harcourt, Brace, and World, 1965), p. 5. 이후 본 논문에서 작품 인용은 괄호 안에 페이지 숫자만 기입함.

것이며 그들의 결합에 당당함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Juan의 고용주인 Givens까지도 그녀의 당당한 모습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신앙으로 비춰진 외부의 모습과 인간 본능의 모습은 얼마나 다른가를 이야기 전개를 통해 알 수 있다.

Concepcion은 남편이 전쟁터로 떠났을 때도 울지 않았고 새로 태어난 아기가 나홀만에 죽었을 때에도 울지 않아, 죽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부적을 권하러 갔던 노파 Lupe는 “그녀는 돌에 불과하다”(9)라고 말했을 정도로 싸늘한 그녀의 일면을 보여준다. Concepcion이 “교회에 그렇게 정기적으로 다니지 않았다면 마귀에 씌었다고 말할 정도로 그녀의 얼굴은 변화무쌍하고 분별이 없어보였다.”(9).

남편과 Rosa가 떠났던 그해 동안 Concepcion은 닭을 사육하고 팔아 돈을 벌러 나갔다. 그러나 그녀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서 지냈으며 그녀의 수척해지는 육체적 변모와 닭잡는 칼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것은 그녀의 깊어가는 분노와 복수심을 잘 나타내 준다.

한편 군대생활에 염증을 느낀 Juan과 Rosa는 어느날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집으로 돌아 온다. 어느날 동틀 무렵 Juan은 군경무리에 의해 발견, 체포되어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그들은 다음날 탈영자들을 총살하기 위해 10명을 기다리던 중 한명을 잡은 것이었다. 그후 Juan은 그 막사의 대위와 직면하게 되는데 Juan의 고용주인 Givens와 친분관계가 있는 그 대위는 Givens에게 전갈을 보내 그를 구제해 준다. 총살을 면하게 된 Juan은 Givens에게 큰 감사를 전하고 Givens는 교회에서 결혼한 Juan이 매우 다르다(informal)는 것을 지적한다. Juan은 교회에서 결혼한 사람은 매우 불행한 사람이고, 더이상 이전의 자신일 수없고 자신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Concepcion에 대하여 불평을 늘어 놓는다.

Juan에게 있어서 부인은 매우 부담스러운 존재로 바뀐다. 자신의 개성이 전혀 없이 남편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Concepcion과는 달리 Rosa는 자신의 주장이 있는 여자이다. 즉 말할 줄도 알고 울줄도 아는 감정이 있는 존재이므로 Juan은 Rosa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꼈다. Juan은 그의 고용주 Givens에게 말하기를 나는 교회에서 결혼했으므로 아내에게 해롭게 하지는 않겠지만 Rosa는 어느 다른 여인보다도 나에게 만족을 주므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도덕적인 면과 성적 욕구의 만족을 모두 얻고자하는 인간의 이중적 성향을 보여주

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Givens은 Juan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이 잘 풀려나 가지 않을 것을 경고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Concepcion이 Juan의 목을 자르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고 한다.

Juan의 표현은 남성적 승리감과 정서적 우울증이 적당히 혼합되었다. 또한 두 여인의 영웅역할 속에서 자신을 보는 것은 유쾌한 일이었다.

한편 Juan의 모험에 대한 소식은 널리 퍼져서 많은 친구들은 그가 군대를 이탈했던 행위에 대하여 칭찬하고 영웅시하였다. 아침나절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영웅대접을 즐긴 Juan은 정오에 Rosa에게 돌아와 그녀가 출생한지 3시간 된 아들과 있는 모습을 보고 뒤틀리는 감정으로 다시 마을로 돌아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다. 그는 이성을 잃었을 때 Rosa에게 되돌아 갔는데 자신의 집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어수선한 환경은 그에게 현실감각을 느끼는데 혼란을 주고 있다. 그러나 결국 집에 돌아왔다는 것은 무의식속에서도 Rosa는 일시적인 여인에 불과하다는 암시라 하겠다.

Concepcion은 모든 사실을 알고도 소리를 치지도, 대항하지도, 공격하지도 않고 의연히 행동하여 Juan은 놀란다:

Maria Concepcion, knowing all the events of that unhappy day, was not in a yielding mood, and refused to be beaten. She did not scream nor implore: she stood her ground and resisted; she even struck at him. Juan, amazed, hardly knowing what he did, stepped back and gazed at her inquiringly through a leisurely whirling film which seemed to have lodged behind his eyes. Certainly he had not even thought of touching her. Oh, well, no harm done. He gave up, turned away, half-asleep on his feet. He dropped amiably in a shadowed corner and began to snore.(13)

이렇게 남편을 기죽여 잠이 들게 한 후 Concepcion은 Rosa를 죽이러 간다. 그녀는 늘 다니던 길로 가지 않고 밭을 가로질러 정신없이 허둥지둥 걷다가 멈춰서 주위를 둘러보곤 하면서 자신이 시장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그녀의 혼란스런 심리상태를 나타낸다.

실제의 살인하는 장면과 Maria Concepcion의 도주는 작품에 묘사되어 있지 않고 이상한 소음에 놀라 Juan이 깨어나는 장면으로 전환이 된다. 그녀는 손에 칼을 든 채로 문에 서 있었고 그에게로 기어들어 왔다. 처음에는 자기를 죽이지나 않을까 겁을 먹었던 Juan은 부인의 살해에 대하여 그녀를 보호해주고 부인이 헌병에게 끌려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 부인의 살인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묻은 칼을 가져오게 하여 씻고 피묻은 옷은 밖에 버리고 부인은 손을 씻으라고 지시한다. Juan은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 처럼 회개하고 싶었다. 그는 또한 부인이 무가치해져감을 느꼈고 거대한 한숨을 토해냈다. 그러나 헌병이 조사하러 왔을 때 Juan은 아무일 없었던 것 처럼 부인을 위해서 진하고, 이러한 남편의 방어는 그녀에게 평정을 찾게 하는 힘이 된다.

Rosa를 죽인 Concepcion은 자신의 살인행위에 대하여 죄의식을 갖기는 커녕 자기 남편의 “사랑을 Rosa가 너무 많이 받았다”(17)는 질투심에 “지옥에 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17)고 생각하게 된다:

Maria Rosa had eaten too much honey and had had too much love. Now she must sit in hell, crying over her sins and her hard death forever and ever. (17)

이것은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는 인간의 이기심과 잔인함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노파 Lupe는 Rosa의 God mother 이자 함께 살았었고, Rosa가 살해되던 날 아침 그녀를 도와주고 함께 있었지만 Concepcion에게 유리하게 증언하여 헌병들이 Concepcion이 범인임에 틀림없다는 심증은 가지만 증거를 잡을 수 없게 만든다. Concepcion은 갑자기 진실한 친구들에 의해 보호되고 둘러싸여 있는 자신을 느끼게 된다.(20) 그들의 눈 속에서 비춰지는 후원의 보증, 이해, 숭고한 동정심들은 곧 “삶의 힘”⁶⁾이랄 수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Concepcion이 당당히 Rosa의 아기를 차지할 수 있게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잔인하게 찾은 승리를

6) Hendrick, p. 30.

만끽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이 작품에는 문명의 계율과 자연충동이라는 논리 사이의 대조가 나타난다.⁷⁾ 이는 새로운 질서와 고유의 전통질서의 대조라고도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Mexico에 기독교 문명이 유입되어 있었지만 아직도 Aztec의 윤리와 도덕률 또 그 나름의 질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정식결혼한 Maria Concepcion과 그렇지 못한 정부 Maria Rosa 사이에서 도덕적 선택이 이루어질 때, 그곳 사람들은 일시적인 애정보다는 가정을 우위에 두었던 것이다. 그들이 Maria Concepcion의 살인을 덮어준 것은 유혈이 좋아서가 아니라 흐트러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함이었다.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Maria Concepcion은 고독과 소외에서 모든 사람이 한 형제와 같은 평화로운 공동체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⁸⁾

한편 심리적 차원에서 보면 Maria Concepcion과 Maria Rosa는 “double”이고 이 이야기는 한사람의 내면 세계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일으키는 양면의 충돌이 된다.⁹⁾

III. “The Cracked Looking-Glass”(1932)의 Rosaleen O’Toole

이 작품은 1931년에 집필하여 1932년 5월에 출판된 것으로 낭만적인 꿈을 갖고 결혼했던 여성이 중년이 되어서야 황량하고 쓸쓸한 자신의 결혼생활의 실상을 인식하고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 작품은 Porter의 작품 중에서 form과 tone에 있어 가장 완벽한 것 중의 하나이나 소소한 가정의 문제를 다루는데 중점을 둔 것이어서 여타의 긴 작품보다 함축적 의미가 별로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Harry John Mooney는 말한다.¹⁰⁾ 여주인공 Rosaleen

7) Robert Penn Warren, ed. *Katherine Anne Porter: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N.J.: Prentice Hall, Inc., 1979), p. 9.

8) Jane Klause DeMouy, *The Seeds of The Pomegranate: A Study of Katherine Anne Porter's Women* (Univ. of Maryland, 1978), p. 44.

9) DeMouy, TSOTP, p. 42.

10) Harry John Mooney Jr., *The Fiction and Criticism of Katherine Anne Porter* (Pittsburgh: Univ. of Pittsburgh Press, 1964), p. 45.

O' Toole은 40대의 여인이며 남편 Dennis O' Toole은 그녀보다 30년이나 연상인, 70이 넘는 노인이다. Rosaleen과 Dennis는 둘이 다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이고 Dennis가 거의 50에 가까운 나이로 뉴욕의 한 호텔에서 수석 웨이터로서 일할 때 만났다. 그당시 Dennis는 검정색 양복을 입고 흰 셔츠에 흰 장갑을 끼고 한편으로는 웨이터들을 다루고 다른 한편으로는 귀한 손님들을 모시면서 급료도 상당히 받고 있었으므로 멋져 보였고, Rosaleen은 “키가 크고 장미처럼 어여쁘며 매우 춤을 잘 추는 처녀”였으며 주위의 청년들이 그녀의 관심을 끌려고 아우성치던 인기있는 아가씨였다.(106) Dennis는 그당시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초혼의 아내와 사별한 후 다시는 결혼을 안하겠다고 생각하고 혼자서 몇년 동안 살아온 후였고 혹시 Rosaleen이 재물을 탐하여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하려는 가난한 처녀의 하나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기도 했었지만 결혼 후 2년이 차기도 전에 그런 생각은 버렸다.

그후 이부부는 Connecticut 시골에 농장을 사서 이주를 하고 별로 큰 말썽없이 살았고 25주년 결혼 기념일을 맞게 된다. 그동안 Rosaleen은 건강하고 원기 왕성한 중년부인이 되었지만 Dennis는 칠십이 넘어 이제는 전적으로 Rosaleen의 도움과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병약한 노인이 되어있었다. 결혼한지 얼마 안되어 때때로 Dennis는 “튼튼한 팔을 가진 청년중의 한사람”으로 하여금 그녀와 결혼하게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하고 느낀적이 있었다.(107) 그러나 그는 훌륭하고 착한 Rosaleen을 매우 좋아했고 그녀보다 더 나은 배우자를 찾을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때때로 그는 그녀가 자기 초혼의 상대자였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하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그들 내외는 지금쯤 연령도 비슷하고 또 생활에도 함께 정착했었을 것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Dennis는 “삼십년은 너무 큰 연령차이”(107)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그의 생각을 그녀에게 말하지는 않았다. 지금에 와서 그는 그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속에 담긴 말도 다 하지 못하고 그녀의 눈치만 살피는 노인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Rosaleen이 부엌에서 행상과 이야기를 주고 받는 것을 Dennis가 듣는데서 시작한다. 그는 Rosaleen에게 “항상 과장해서 이야기 한다”고 꾸짖지만 그녀는 “글쎄요...그가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니까 좋은 이야기를 하나 해 주었어요. 그건 제 속에 있는 아일랜드인 기질 때문이지요.”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그는

그녀가 자기의 결점을 아일랜드인의 기질 탓으로 돌리는 것은 아일랜드인에게 아주 몹쓸 짓을 하는 것이라고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 그러나 수다스럽고 꿈 이야기를 하기 좋아하는 Rosaleen은 농담을 하는 척하며 “그건 바로 당신 머리가 돌갈기 때문이에요”라고 말했다. 그녀의 이 말에 그는 문제가 되는 점은 그녀가 자기를 한번도 제대로 평가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느끼며 자존심이 상한다. 더우기 Dennis는 첫번째 부인이나 Rosaleen 모두를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자로 단정함으로써 여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활달한 도시형의 여인인 Rosaleen은 한적한 Connecticut의 농촌 생활이 더욱 견디기 어려웠다. 대화라도 나눌만한 이웃조차 드물었기 때문이다. 때때로 그녀는 흑인 신교도와 그들보다 나은 것도 없는 백인 이웃들 외에는 이야기할 상대도 없는 이곳에 오지 않았었다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 후회하기도 한다. 원주민들은 한층 더 나빴다. 게다가 남편 Dennis조차도 Rosaleen과 처음 만났을 때 같은 멋진 모습은 자취도 찾아 볼 수 없고 노쇠하여 그녀의 마음에 위안을 주지 못했다. 그 심정을 그녀가 젖을 짜면서 젖소에게 지껄이는 “이건 정말 사는게 아니야, 그나이의 남자는 여자에게 위안이 되지 못해”라는 말은 그녀의 쓰라린 심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107)

그러나 그녀의 결혼 생활에 가장 큰 타격이 되었던 것은 이들 부부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결혼 초에 아들을 하나 낳았지만 그 아들을 이틀만에 잃고 그후로 Rosaleen은 다시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된 것이다. 한편 그녀는 이제 노쇠하고 무기력한 남편 Dennis를 아이처럼 대하게 되고, 단조롭고 무의미한 일상생활은 Rosaleen으로하여금 집에서 일을 거들며 함께 살았던 Kevin에 대하여 특별한 감정-자식이나 혹은 남동생같은-을 갖게 했다. Kevin은 그녀에게 있어 대화의 좋은 상대로 큰 위안을 주었었다. 그러한 Kevin조차, 남자는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야하고 어디선가는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New York이나 Boston으로 가겠다고 하며, 그녀의 집을 떠나게 된다. 그가 떠나던 날 집으로 돌아 온 Rosaleen은 부엌의 창 옆에 걸려있는 금이간 사각형의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본다. 거울에는 잔물결 같은 흔적이 있었고 한가운데 금이 나 있어서 마치 Rosaleen의 모습이 물 위에 비친듯 하였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 맹세코 나는 저 모습이 싫어... 만일 내가 정말 그렇다면 그가 떠난 것도 무리가 아니지. 그

러나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라고 말하며 오래되고 금이 간 거울에 비친,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Kevin이 그녀를 떠났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한다.(109) 이후 떠난 Kevin으로부터는 Woolworth빌딩이 그려진 엽서 한장이 날라왔을 뿐이다. 그것은 Kevin이 대도시인 뉴욕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고, 결국 Rosaleen이 그에게 끌렸던 이유는 그에게 잠재되어 있던, 그리고 그에게서 느껴졌던 도시지향적 성향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 상대이던 Kevin마저 떠나고 Rosaleen은 불만과 고독의 돌파구를 잃고 더욱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된다.

결혼 25주년을 맞은 Rosaleen과 Dennis가 식탁을 마주하고 저녁을 들면서 회상에 잠긴다. Dennis는 Rosaleen을 바라보면서 “그녀의 붉은 머리칼과 노란 눈꺼풀, 긴장한 두팔을 바라보며 그녀가 여전히 좋은 여자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더이상 제대로 사람구실도 하지 못하는 자신을 그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게 여겼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이 다 허사였다. 벌써 수년간 그랬었다. 그리고 Dennis는 Rosaleen 앞에서 때로는 죄스럽게 느꼈는데 그녀는 한 남자의 인생이 끝난 것 같은 때가 어떻게 찾아오게 되었는지를 언제나 이해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해 볼 도리도 없었다.”(110) 그날밤 Dennis는 졸다가 잠이 들었으나 그녀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어나 앉아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남편이 주정뱅이이거나 일을하지 않고 마누라와 자식들을 들볶는다면 또 남편과 아내가 각각 바람을 핀다면 하는 다른사람들의 불행한 결혼생활에 대해서 생각했다.”(113) 그리고 노인과 결혼한 젊은 여자의 결혼생활에 생각이 이르렀고 자신의 결혼생활까지를 떠올리게 되었다. “만일 Dennis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면 정말 어떻게 되었을지는 하나님만이 아시지. 나는 운이 좋았어”라고 자신을 타일렀지만 결국은 비참하고 절망적인 기분이 되어버렸다.(113) 자기 자신의 일생이란 하나같이 재난이 계속된 것일 뿐이라는 생각과 함께 죽은 아이를 떠올리게 되었고, 슬픔에 북바쳐 울기 시작하였다. 그 아이가 살았으면 이제는 훌륭한 청년이 되었을 것인데.. 하는 생각과 함께 죽은 아이의 영상은 그녀가 자식처럼 느꼈던 Kevin의 영상으로 바뀐다.그러나 Rosaleen을 누이처럼 느끼고 그녀를 결코 잊지 않으리라던 Kevin은 이제 전혀 연락이 없다.

심정을 토로할 대상이 없는 Rosaleen은 남편 Dennis에게 자기 소녀시절에 읽힌 여러가지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기도 하지만 Dennis는 이미 수없이 들어온 터라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고 가끔 집으로 찾아오는 행상들에게 말을 걸어보지만 이또한 자주있는 일도 아니고 곧들 떠나므로 그녀의 하소연을 풀기에는 불충분하였다. 자연히 그녀는 혼자서 중얼거리거나 집안의 가족에게 그녀의 감정을 폭발시키곤 하였다. 드물게는 이웃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그중에는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는 노총각 Guy Richards가 있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Rosaleen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그녀의 시골생활에 대한 염증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겠다.

어느 겨울 아침 고독한 생활에 지친 그녀는 자매인 Honora가 아파서 죽는 꿈을 꾸었다면서 그녀를 만나러 Boston으로 가겠다고 선언한다. 그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위기를 맞은 중년부인으로서 Honora가 아파서 병문안가 봐야겠다는 Rosaleen의 말은 여행 목적이 Honora를 보기 위함이 아니라 방황하고 있는 자신이 도회지에 가면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안정될 것같은 기대감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그녀의 도시에 대한 미련이나 과거에 대한 집착등은 그녀의 허영심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Dennis는 Rosaleen의 여행을 좋아하지 않았고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 제대로 일도 못하는 자신을 혼자 두고 Honora를 만나러 간다는 것은 핑계이고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게 되고, Rosaleen의 심정을 어느정도 감지하고 있었기에 그녀가 제정신이 돌아와서 여행을 포기하기를 바란다. 즉 그녀가 현실에 적응하면서 살아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 자신의 잃어버렸던 정체감을 도시속에서 찾아 보겠다는 그녀의 꿈을 Dennis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다. Rosaleen은 기차여행을 통해 자신의 잃어버린 도시의 꿈을 되찾으려고 한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도시는 환상의 세계이다. 슬픈 얼굴은 어느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곳. 그래서 그녀도 그 속에 있어야 행복해 질 것 같은 착각이 든다. 이러한 Honora에 대한 끝없는 질투심은 도시에 살고 있는 그녀에 대한 Rosaleen의 질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Rosaleen은 전에 살던 곳을 방문하고 싶어 New York으로 우선 갔고, 오래간만에 한껏 기분을 내보았다. 그녀는 5년만에 영화도 보았는데 "The Price

of Love”라는 제목이었다. 그러나 거리는 춥고 어둡고 볼품 없었으며 물밀듯이 밀려가는 수백만의 사람중에 아는 얼굴이 하나도 없었다. 상점안의 물건들은 그녀가 눈을 의심하리만치 그 스타일들이 변해 있었고 그순간 그녀는 집과 Dennis를 생각하게 된다. 딸기향을 낸 아이스크림을 사먹고 분침을 샀고 “The Lover King”이라는 영화를 보고 사랑의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는 선착장으로 가서 Boston으로 가는 배를 탔고 배에서 저녁을 먹고 잠이 들었다. 배타기를 좋아하는 그녀는 오랜만에 기분이 아주 좋았고 Connecticut은 아득한 곳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생각하는 도시는 무도회, 초콜렛, 아름다운 의상, 아이스크림등과 같은 것이다. 도시에 와서 그녀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자신이 도시 타입의 여인이라고 생각하던 것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즉 그녀의 자리가 그곳에 없다는 것이다. 도시에서 자신의 정체감을 역시 찾지 못한 Rosaleen은 비로소 시골에 두고 온 남편에 대한 생각을 한다. 그러나 또 집과는 멀리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자신이 시골 여인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싶은 기분이 된다.

한편 Honora와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자 Boston이 싫어지게 된다. Honora를 보고 싶은 이유중 하나는 그녀의 모습속에서 자신이 도회지에 살면 어떤 모습일까를 투사해 보고싶은 마음때문인듯 하나, 시골 여인인 자신과 도회지 여인인 Honora를 보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는 까닭에 Honora가 있는 Boston에 가까워지는 것이 싫어진 것이라고 보겠다.

Boston에 도착한 Rosaleen은 우선 가까운 교회에 가서 제단 근처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런 후에야 그녀는 택시를 타고 Honora의 집으로 간다. 그러나 그집에는 Honora가 살고 있지 않았고 수위는 Mrs. Terence Gogarty라는 이름이나 Mrs. Honora Gogarty라는 이름은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고 전화번호부에서도 Rosaleen은 Honora의 이름을 찾지 못한다. 실망과 충격에 빠진 Rosaleen은 차가운 바람이 부는 밖으로 나와 헐벗은 나무와 쇠로 된 벤치가 있는 구질구질한 광장에 도착하여 싸늘한 벤치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때 그녀는 춥고 배고파 죽어간다고 말하는 Ireland출신의 소년을 만났다. 소년의 모습에서 어렵פות이 Kevin의 모습과 비슷한 점을 발견한 그녀는 순수한 동정심으로 그 소년에게 저녁을 사주었고,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고 시골의 자기집에

가 함께 살기를 제안한다. 그러나 그 소년은 교활한 표정을 지으며 Rosaleen이 마치 자기를 성적으로 유혹하려고 해서 귀찮고 성가시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며 제안을 거절한다. 소년의 불손한 말뜻을 알아들은 그녀는 화가나서 소년을 쫓아버렸지만 자기의 따뜻한 진심을 왜곡당한 충격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와 동시에 그녀는 Kevin도 자기를 사랑했고 자기도 그를 사랑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비판에 젖은 Rosaleen은 눈물을 흘리다가 정신을 가다듬고 집으로 돌아 온다. 그녀의 모처럼의 여행은 자신이 얼마나 고독하고 잃은 것이 많은가를 깨달은 외에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Rosaleen이 Honora를 찾지 못한 것은 항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그녀의 허영심을 나타낸다고 보겠다. 자신의 정체감을 찾고자 떠났던 먼 길에서 Rosaleen은 아무것도 구하지 못한다. 공허함 속에서 현실로 서서히 돌아가면서 남편에 대한 그리움도 느껴본다. “그녀는 담배 냄새를 좋아했다. 그녀의 남편은 항상 파이프를 물고 있는 애연가 였었다.”라는 표현이 그것을 단적으로 말해준다고 하겠다.(127) 그리고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길거리에서 만난, 굶주린 Hugh Sullivan에게 자신의 시골 집에 가서 함께 살자고 제의했을 때 보인 Sullivan의 반응에서 Rosaleen은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과 타인이 보는 자신이 다름을 깨닫게 된다. 집에 돌아온 Rosaleen은 Boston에서 Honora를 만나지 못한 사실을 Dennis에게 차마 말할수 없어서 Honora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다. 그녀의 충격은 이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들의 집에서 심부름을 하는 인디안 소년이 길에 무엇인지 시키면 것이 있어 무서워서 집에 못가겠다고 하자 친절한 Rosaleen은 저녁을 먹고 그날밤 자기 집에서 재워주었다. 어머니의 꾸중을 무서워하는 소년을 데리고 간 Rosaleen에게 소년의 어머니는 Rosaleen이 늙은 남편과 살기 때문에 젊은 남자들을 유혹하여 끌어들이는 나쁜 여자라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그녀에게 퍼붓는다. 청천병력의 말을 들은 그녀는 격노하여 그 여자에게 맞선다. 그렇게 못된 말을 하면 하나님은 천벌을 내리실 거라고 소년의 어머니에게 한바탕 퍼부어졌지만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Rosaleen의 상심은 말할 수 없었다. 도대체 왜 그녀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녀를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더러운 말만 하는지도 무지 알 수가 없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녀는 그런 사람들을 모두 목졸라 죽이고

싶었고 눈에서 불이 나는듯해 눈을 감을수가 없었다.

그러자 집에 돌아오는 길에 Rosaleen은 또 다시 Kevin에 대해서 생각한다. 이렇게 어려운 때 이 슬픈 시골에 Kevin이 돌아와서 그녀와 함께 있어준다면 이렇게 모욕적인 대접도 웃어넘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자기의 명예와 위신이 극도로 실추되는 위기에 직면해서도 남편인 Dennis의 위로와 도움을 얻을 생각은 전혀 떠올리지 않았다. 이는 이미 이 부부 사이가 남편처럼 소원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라 하겠다. 이러한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남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Rosaleen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나쁘게 말했던 것을 감춘다. 자신의 실체를 파악한 후에도 그녀가 자신을 계속 속이는 점에서 남편 Dennis가 일찍이 Honora를 보러간다고 떠나는 Rosaleen에 대해 “타고난 거짓말쟁이”(122)라고 혼자 말했던 것처럼 Rosaleen에게 진실성이 결여된 것을 알 수 있다. 평소의 수다스런 태도가 달라진 것을 궁금히 여긴 Dennis가 사람들이 무슨말을 하더냐고 자꾸 캐묻지만 그녀는 대답을 회피한다. 이날따라 지나가면 언제나 들르던 Richards도 녀의 집에 들르지 않고 가버리고, 실의에 찬 Rosaleen은 희망에 찼었던 자신의 과거와 실망스런 현재, 그리고 희망없는 미래를 생각하게 된다. 무의식적으로 Dennis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던 Rosaleen은 일어나 앉으며 남편에게 감기걸리지 않게 조심하라고 말한다. “만일 당신에게 무슨일이 일어나면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되었어요?”(134)라는 표현에서 그녀가 오랜 방황끝에 비로소 자신의 안식처를 찾게 됨을 읽을 수 있다.

이 작품의 제목 역시 상징적이다. 거울은 사람의 모습을 비쳐준다. 그러나 Rosaleen의 거울이 금이가서 제 모습을 똑바로 비추지 못한다는 것은 그녀가 자기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Boston에 갈때 그녀는 새 거울을 사겠다고 말했었지만 결국 그녀는 사지 않고 돌아왔는데, “거울 사는 것을 까맣게 잊었어요”(133)라는 그녀의 말 속에서 아직도 현재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녀의 한가닥 희망을 엿볼 수 있다. 자신의 추하고 일그러진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은 거울이 깨어져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그녀의 실체였음에도 Rosaleen은 그것을 인정하려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거울은 그만하면 됐어”(134)라고 Dennis가 여러번 말하는 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

11) Jane Klause DeMouy, *Katherine Anne Porter's Women: The Eye of Her Fiction* (Austin: Univ. of Texas Press, 1983), P. 72.

일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Demouy도 Rosaleen이 새 거울을 사지 못하고 아직도 금이간 거울을 보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자신의 현재모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본다.¹¹⁾ 이 작품의 끝 장면에서도 그녀가 바라본 거울 속의 모습은 괴물처럼 뒤틀린 모습이다. 이는 그녀가 Boston에서 만난 아일랜드계 소년이나 이웃의 인디언 소년의 어머니가 그녀의 진심을 제대로 보지 않고 왜곡해서 보고있는 것을 상징하기도 한다.

뿐만아니라 이 작품 속에서의 거울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여성에게는 남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고, 또 그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처녀로 영원히 남고 싶은 욕망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기르는 행복한 어머니가 되고픈 욕망이 병존한다는 것과 관련이 된다. 바로 "거울 가운데의 금이 간 것"(109)이 이러한 여성의 양분된 심리를 상징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Rosaleen의 심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며, 특히 그녀가 거울을 들여다보는 행위는 낭만적인 비인으로 남고 싶은 자기탐욕(narcissism)을 상징한다.¹²⁾ 삼십년이나 연상인 남편과 결혼한 Rosaleen의 경우, 첫아이를 잃은 후 다시는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었고, 따라서 그녀의 모성적인 본능-고양이나 닭, 또는 암소를 잘 보살피는 데서도 Rosaleen의 모성본능을 엿볼 수 있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었다.

이러한 Rosaleen의 심리 내지 성향은 또한 Erik H. Erikson의 사회.심리적 발달이론¹³⁾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절히 분석되어질 수 있다. 언급했듯이 "The Cracked Looking-Glass"는 자신의 정체감을 확립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중년여인의 위기를 묘사한 단편으로 볼 수 있다. 결혼생활에서 남편과 친밀하고 신뢰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함으로써 고독감에 싸여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또한 자식을 갖지 못함으로써 마음의 여유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 이는 즉 생식성의 결여로 인하여 정신적 침체에 빠지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

12) DeMouy, TSOTP, p. 126 참조.

13) Erikson의 '사회.심리적 발달이론'은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회.심리적 환경에 잘 적응했을 때 나타나는 성격의 특성과 그렇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부적응 현상을 8단계로 나누어 1. 기본적 신뢰감대 불신 2. 자율성대 수치심과 의심 3. 창의성대 죄책감 4. 근면성과 열등감 5. 정체감대 역할혼미 6. 친밀성대 고립감 7. 생식성대 침체 8. 자아통합대 절망 으로 설명한다.(Erik H. Erikson, *Childhood and Society* (1963), Chapter 7 참조.)

의 생산적 성원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만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게 되었고, 그로인해 대인관계도 원만하지 못하고 희망도 잃고 생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방황하는 모습을 Rosaleen에게서 볼 수 있다.

Rosaleen의 이러한 심리적 부적응 현상은 또한 심리적 퇴행과 자아몰입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생활에서 만족과 기쁨을 얻지 못하는 것을 보상받기 위하여 과거로 되돌아가 자신을 찾고자 하지만, 뒤늦게 자신이 추구했던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었던가를 사회적 거울을 통해서 비춰진 자신의 영상속에서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실체도 조금씩 깨닫게 된다. 물론 Rosaleen 자신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들이기에 더 큰 심리적 갈등을 겪게 된다. 자신에 대한 그릇된 기대로 자신의 정체감을 갖지 못한, 허영심과 질투심 많은 한 여인이 겪는 중년의 위기가 성취할 수 없는 성적 욕구를 추구하고자 하는 본능에 대한 묘사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DeMouy는 Rosaleen의 왕성한 수다의 원인도 그녀에게 결여된 생산 내지 창조 능력의 출구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¹⁴⁾ 그녀의 수다는 일종의 창조적 행위로서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꾸미고 과장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원시 예술가가 민족 설화를 창조해 내는 것에 비할 수 있는 것이며, 그녀의 성적인 정력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녀의 수다의 상대자로서 가장 적격이었던 사람은 그녀가 아들처럼 사랑했던 Kevin이었다. 이러한 Kevin은 Rosaleen에게 있어 두가지 의미를 갖는데, 그는 곧 연인인 Prince Charming이며 동시에 아들로서 그녀가 여성으로 가지고 있는 양면적 심리의 욕구를 함께 충족시켜 주는 인물인 것이다. 또한 그는 남편에게서 얻을 수 없었던 친숙함과 안락함을 느끼게 해 주었다.¹⁵⁾

그녀의 집에 자주 드나드는 노총각 Guy Richards의 경우에도 언어는 중요하다. 그녀와 Richards는 둘다 말재간이 있고 이야기 하기를 좋아하며 서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이끌리는데, 이것은 두사람이 서로 성적으로 좋은 상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면서, 사실은 서로 상대방에게 성적으로는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14) DeMouy, KAPW, p. 62.

15) DeMouy, KAPW, p. 67 참조.

실로 그녀에게 있어서 수다를 떠는 것은 창조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중요한 행위가 되었다. 늙은 남편과 살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한다는 창조적인 행위를 육체로 행할 수 없는 그녀는 입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과거나 현재에 실제 일어난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속의 일까지 한데 섞어서 말하곤 하였다. 따라서 그녀가 말한 내용의 진실성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중요한 점은 그녀의 이야기가 호소력이 있어서 남자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것이다. 수다스럽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녀가 성적으로 매력이 강한 여자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인데 세월이 가면서 성적 매력이 줄어든 Dennis가 점점 말이 없어진 것과는 좋은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한편, Rosaleen이 New York과 Boston으로 여행을 간 것은 그녀가 과거로 복귀하고 싶은 욕망을 가졌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을 Hendrick은 Dennis에게는 현재가 중요했고 Rosaleen에게는 과거가 더 중요했으나 이 여행이 그녀로 하여금 환상을 벗어나 현실에 눈뜨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평한다:

The story is an account of Rosaleen's progression from illusion to reality... He lived almost entirely in the present instead of the past..

Rosaleen lived much in the past, because it could be improved upon in memory and in story... When she had to face actual death, she put aside the grim reality by dreaming about it, as she did after the great-grandfather's death.¹⁶⁾

그녀가 발견한 것은 오직 그녀의 아름다운 과거가 상실되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허무 뿐이었다. 이제 그녀에게서는 청춘과 여성으로서 행복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영원히 사라졌다는 뜻이다.

이 작품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녀의 자세는 애처롭고 절망적이다. 그녀는 아이처럼 Dennis에게 기댔지만 그는 그녀를 보호하고 감싸줄 능력이 없다. 오히려 그녀

16) Hendrick, pp. 104-105.

는 그나마 Dennis가 죽으면 그야말로 이 황량한 세상에서 외톨이로 남으니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모성애적인 말을 한다. Hendrick은 Rosaleen이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나 그녀의 앞날은 절망적이라고 쓰고 있다:

Rosaleen had accepted the reality of their life; but, in order to go on living, they could not think of the future, of his approaching death. The story ends on the same note of despair on the human condition that one finds in many of Miss. Porter's other stories.¹⁷⁾

이에 반하여 John Edward Hardy는 그녀의 앞날을 절망적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견해라고 하며 그녀의 꿈을 체념하고 결혼으로 안주하는 이야기의 끝 장면은 아주 미약한 정도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것으로 본다. 그는 Rosaleen의 거울을 James Joyce의 작품에 나오는 Mulligan의 거울과 연관지어 Stephen Dedalus가 이 거울에 대해서 Irish Art의 상징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Rosaleen의 꿈이 대변하는 예술-이것은 환상과 자기 기만의 예술-이라고 본다. Porter의 이야기는 이와 같은 자기의 견해를 명백하게 밝히고 있으며 그 잘못된 예술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⁸⁾ 그러나 여하간 Porter는 암담한 현실에 대한 쓰라린 깨달음에서 그칠 뿐 Rosaleen이 택할 수 있는 현실 타과의 확실한 출구는 제시하지 못하고 이 작품을 마무리 짓고 있다고 하겠다.

IV. 결론

20세기 전반부에 등단하여 미국소설의 전통을 이은 Katherine Anne Porter는 그 주제의 진지성에 있어서나 문장표현, 작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점에 있어서 탁월한 작가라고 평가된다. 스스로 운명을 개척했던 Porter는 그녀의 작품 속

17) Hendrick, p. 106.

18) John Edward Hardy, *Katherine Anne Porter* (New York: Ungar, 1987), p. 59참조.

에서 대부분의 경우 여성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 여성작가 특유의 섬세함으로 그 여주인공의 미묘한 심리상태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들 여주인공들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인생의 새로운 국면에 돌입하거나 또는 자기 실체의 본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거짓된 환상에 사로잡혀 평범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다가 어느날 사소한 일이 실마리가 되어 현실의 실체를 깨닫게 되고 그로부터 충격을 받게 된다. Porter는 이러한 이상과 현실사이에서 생기는 격차로 여주인공들이 겪는 환멸과 충격의 다양한 모습을 세련된 심리묘사를 통하여 독자들에게 제시함으로써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고민하게끔 유도한다. 이중에서도 기혼 여성들의 좌절과 갈등을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 주목할만 한데, 특히 본 논문에서 다룬 "Maria Concepcion"과 "The Cracked Looking-Glass"는 그러한 면에서 더욱 두드러진 작품이라 하겠다.

"Maria Concepcion"은 Mexico의 시골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세 Mexican 인디언 사이의 사랑과 질투, 복수에 얽힌 삼각관계를 다룬 이야기이다. 여주인공 Maria Comcepcion은 신앙심 깊고 평판좋은 여인으로 열심히 가정을 꾸려나가며 만족하여 살다가 어느날 남편 Juan의 외도를 목격하고 참담한 심경이 된다. 남편의 배신에 대한 충격과 그의 정부 Rosa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은 그녀로 하여금 Rosa를 해치는데까지 이르게 하는데, 그녀의 살인은 이웃과 남편의 도움에 의해서 방어, 묵인되고 다시 이 둘은 Rosa의 아기와 함께 이전의 생활질서를 찾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난다.

이 작품에서는 결혼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남편의 외도, 아내에 대한 배신으로 인해 여성이 겪게 되는 심리가 표현되고 있다. 남편과 그의 정부가 즐거워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죽고싶었던 Maria Concepcion의 충격적 심정은 남편의 사랑을 빼앗긴 데 대해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충격과 복수의 심경을 Porter는 매우 적절하고 세밀하게 묘사한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것이나 수척해 가는 그녀의 모습, 닭 잡는 칼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것 등에서 그녀의 깊어가는 분노와 복수심을 잘 엿볼 수 있다. 특히 Maria Concepcion의 위와 같은 심리상태를 닭 잡는 것-닭의 대가리를 잡고 목을 비틀고 자르는 것-등을 통하여 묘사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또한 남편 Juan의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에 대하여 Maria Concepcion 역시 그러한 성격을 나타낸다. 정부 Rosa를 살해하고도 죄의식은 커녕 오히려 더한 저주를 하였고, 죽은 Rosa의 아이와 남편을 내 것이라고 하면서 아무일 없었던듯한 밥그릇에서 밥을 먹는 그녀의 행동은 인간의 내면에 잠재하는 이기심과 잔인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The Cracked Looking-Glass”는 꿈을 안고 결혼했던 여성이 중년에 이르러 황량한 자신의 결혼생활의 실상을 인식하고 받게 되는 충격이 묘사된 작품이다. 여주인공 Rosaleen O’Toole과 남편 Dennis O’Toole은 연령상 30년 차로 결혼 25주년을 맞아 아내는 왕성한 중년의 부인이 되었고 남편은 병약, 노쇠하게 되었다. 또한 훌륭한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Rosaleen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Connecticut의 시골생활에서는 이야기 상대가 될만한 이웃도 마땅하지 않았다. 자식처럼 동생처럼 여기고 단 하나 큰 위로가 되었던 Kevin마저 도시로 떠난 후 그녀에게 기쁨을 줄 조건은 아무것도 없고 고독과 불만의 돌파구를 찾을 길이 없어진다. 그러던 중 늘 도시생활에 환상을 가지고 있던 Rosaleen은 Boston의 자매 Honora를 만나러 간다는 구실로 여행을 떠난다. 그러나 자신에게 맞을 거라고 생각 되던 도시에서도 결국 그녀는 혼자였고 Honora도 만나지 못한다. 거리에서 만난 소년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나 그러한 호의도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그녀가 꿈꾸던 도시는 환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심부름하는 인디안 소년 어머니가 그녀를 대하는 언행에서도 견딜 수 없는 모욕을 느끼고 더욱 쓸쓸한 기분이 된다. 금 간 거울 대신 여행에서 새 거울을 사오려고 했으나 그러지 못하였고, 돌아와 금 간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이 여전히 흉한 것은 깨진 거울의 탓으로 생각하려 한다. 남편의 말처럼 그거울은 Rosaleen에게는 충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 작품에서 중년 여인 Rosaleen이 가진 심리를 가장 잘, 그리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글의 제목이기도 한 “금 간 거울(The Cracked Looking-Glass)”이다. 부엌의 창 옆에 걸려 있다는 것에서 부터 이 거울은 Rosaleen을 상징하는 것이다. 즉 그녀가 창 너머의 세계-그녀의 현 결혼생활, Connecticut 시골 생활을 벗어난 세계-를 동경하는 것을 나타내고, 그러나 부엌에 걸려있을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생활과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녀의 실재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금이가고 오래된 거울에 비춰진 그녀의 흉한 모습은 그녀 자신도, 그리고 이웃들도 그녀를 제대로가 아닌, 그야말로 흉한 모습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어쩌면 나름대로 행복할 수 있었을 결혼생활에서 Rosaleen은 전혀 어떠한 만족감도 얻지 못하고 그 원인을 연령차가 큰 남편과의 관계, 죽은 첫 아이와 자식을 더 이상 갖지 못하는 것, 시골생활 등의 외부적 요인들로 돌리면서, 지금 자신이 흉하게 보이는 것은 금 간 거울에 비춰졌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언젠가 새 거울에 비춰질 자신은 훨씬 아름다울 것이라고 생각면서, 그러나 도시를 여행하고 돌아온 그녀는 그 몇일간의 도시생활을 통해서 조금씩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닫기 시작한다. 하지만 역시 새거울을 장만해 오지는 않는다. 이는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닫기 시작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만큼의 준비는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깨어져 두쪽으로 나뉘어있는 그 거울은 Rosaleen의 마음 저변에 깔려 있는 그녀의 모든 다른 사고를 자라게 하는, 근본적인 심리의 상태를 상징한다. 즉 여성으로서 갖는, 이성에게 언제나 처녀처럼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은 바램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어머니로서 자연스럽게 살고싶은 바램 사이의 갈등이 있게 되는데, 특히 Rosaleen의 경우는 남편과 연령차가 컸고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갈등을 순리대로 해소시키기 어려웠고, 이러한 그녀 속에 존재하는 양분된 심리를 역시 금 간 거울이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본 논문에서 다룬 "Maria Concepcion"과 "The Cracked Looking-Glass"의 두 작품 속의 여주인공들은 둘 모두 기혼 여성이고 첫 아이를 잃고 자식이 없다. 한명은 남편의 배신으로 또 한명은 많은 연령차와 돌파구가 없는 고독과 불만으로 가정의 원만한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된다. 두 경우에 있어서 배경이 되는 사회가 다르고 사회에 따라 다른 반응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어느 사회에서나 여성에게는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본 논문에서 다룬 여주인공들에 특유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으며 실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한데, 이러한 문제들을

Porter는 적절하고 세밀한 묘사등을 통하여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순리적이고 부부간의 신뢰에 바탕을 둔 따듯한 가정이 절대적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현재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한다.

참고문헌

- Auchincloss, Louis. *Pioneers & Caretakers : A Study of 9 American Women Novelists*. Minneapolis: Univ. of Minnesota Press, 1965.
- Borklund, Elmer. ed. *Contemporary Novelists*. London: St.. Martin's Press 1977.
- Bunkers, Suzanne. *Katherine Anne Porter : A Re-Assessment*. Univ. of Wisconsin-Madison, 1980.
- DeMouy, Jane Krause. *Katherine Anne Porter's Women : The Eye of Her Fiction*. Austin: Univ. of Texas Press, 1983.
- . *The Seeds of The Pomegranate : A Study of Katherine Anne Porter's Women*. Maryland: Univ. of Maryland, 1978.
- Givner, Joan. *Katherine Anne Porter : A Life*.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82 ed., *Katherine Anne Porter : Conversations*. Jackson and London: Univ. Press of Mississippi, 1987.
- Hardy, John Edward. *Katherine Anne Porter*. New York: Ungar, 1987.
- Hendrick, George. *Katherine Anne Porter*. Boston: Twayne Publishers, 1965.
- Liberman, M. M. *Katherine Anne Porter's Fiction*. Detroit, Wayne State Univ. Press, 1971.
- Litz, A. Walton. ed. *Major American Short Stories*.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80.
- Mooney, Harry John, Jr. *The Fiction and Criticism of Katherine Anne Porter*. Pittsburgh: Univ. of Pittsburgh Press, 1964.
- Nance, William L. *Katherine Anne Porter and the Art of Rejection*.

- Chapel Hill: Univ. of North Carolina Press, 1964.
- Unrue, Darlene Harbour. *Truth and Vision in Katherine Anne Porter's Fiction.*: Univ. of Georgia Press, 1985.
- Voss, Arthur. *The American Short Story: A Critical Survey.* Norman:Univ. of Oklahoma Press, 1973.
- Warren, Robert Penn, ed. *Katherine Anne Porter: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N.J.: Prentice Hall, Inc., 1979.
- West, Ray B., Jr. *The Short Story in America 1900-1950.* New York: Books for Libraries Press, 1952. Text:
- Porter, Katherine Anne. *The Collected Stories of Katherine Anne Porter.* New York & London: A Harvest/HBJ Book, 1979. Text:
- Porter, Katherine Anne. *The Collected Stories of Katherine Anne Porter.* New York & London: A Harvest/HBJ Book, 1979.

Abstract

The Psychology of Women in Katherine Anne Porter's "Maria Concepcion" and "The Cracked Looking-Glass"

Shim, Bang-Ja

Katherine Anne Porter is one of America's best writers, well known for her handling of serious themes and also for her conscious and sincere efforts to perfect her techniques, methods, and style. In addition, she is praised for her humanity and warmth and for the stoic virtues which her female characters show in the face of life's hardships.

This study deals with Porter's "Maria Concepcion" and "The Cracked Looking-Glass" with emphasis on how she illustrates her female characters with subtle psychological insight.

"Maria Concepcion" is the story of a young Mexican peasant woman, Maria Concepcion, who killed her husband's mistress, Maria Rosa, won back her husband and restored her universe to what it was like before. The story shows the competitive relationship between Concepcion and Rosa, resulting in damage to both women.

On the other hand, "The Cracked Looking-Glass" describes a middle-aged woman, Rosaleen O'Toole, living with her aged husband on a country farm. She had no hope of realizing her long-cherished dream of happiness. In pursuit of her romantic illusions about love, Rosaleen roamed around looking for happiness outside, but instead she gained nothing but scorn.

Their social backgrounds are different and the reactions of each society are different. Both of the women characters in the two stories show complete and compelling portraits of womanhood. They find

overwhelming disparity between expectations and reality and both women become frustrated and disillusioned. However, Porter implies that people should summon their courage to confront reality and try to lead lives with love, dignity and determination.